



책의 맛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 소식지
제14호 2022년 8월

발행처: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로 150-23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 031-8063-1881

책이 없는 방은 영혼없는 몸과 같다

A room without books is like a body without a soul

- 마르쿠스 툴리우스 시세로

◆ 도서관 이용 안내

- 이용시간

평일 8:40 ~ 16:40

-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

- 대출 및 반납

2권 30일

※ 거리두기 완화 후 변경 될 수 있음

◆ 9월 독서의 달 프로그램 안내



「도서관에 떨어진 소포들」

기간: 2022년 9월 5일 ~ 9월 30일

장소: 도서관

작년 독서의 달 행사로 진행되었던 ‘나를 위한 두근두근 책 선물’ 프로그램을 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한 번 더 진행합니다. 작년에는 어떤 상황에서 읽으면 좋은 책인지 쪽지에 적혀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적혀 있습니다. 1명당 하루 한 권 대출이 가능하니 매일 도서관에 방문하여 대출해보세요!

◆ 9월 독서의 달 프로그램 안내

「도서관 빙고판 채우기!」

기간: 2022년 9월 5일 ~ 9월 30일

장소: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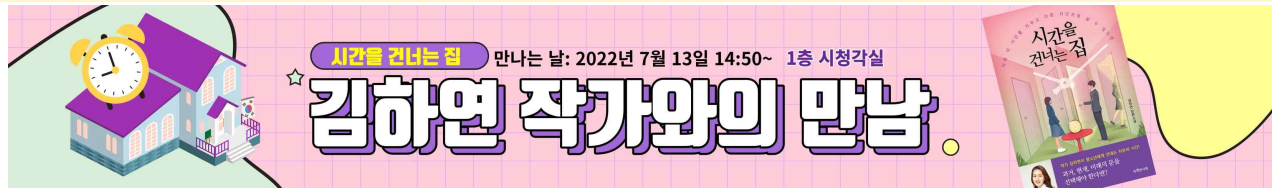
도서관에서 빙고판을 받아 해당하는 분류표의 책을 읽은 후 도서관에서 독서카드를 작성하세요!

선생님이 귀여운 도장을 찍어드립니다. 도장을 모아서 빙고를 만들면 선물!

상품지급일: 9월 30일 ~ 10월 7일(일주일)

900 역사	300 사회과학	700 200 언어 종교
100 철학	800 문학	000 총류
600 예술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 작가와의 만남 후기



‘시간을 건너는 집’ 작가와의 만남 감상문

11112 양하은

‘시간을 건너는 집’ 작가 김하연 작가를 만났다.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작가님이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내용은 어떤 것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등을 알게 되었다.

먼저, ‘시간을 건너는 집’은 한 사진을 보고 영감을 얻으셨다고 하셨다. 그 사진에는 낡은 구두 그림과 ‘이 구두를 신으면 과거, 현재,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하셨다.

또, 주인공들의 사연은 뉴스나 작가님 지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쓰셨다고 하셨다. 선미의 사연은 작가님의 친구분께 대한 이야기로 쓰셨다고 하셨고 이수의 사연은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로 쓰셨다고 하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책에 나오는 아이들의 사연이 실재를 바탕으로 썼다는 것을 듣고 쓸쓸했다. 책에서의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도 심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심하기에 더 안타까웠다.

그냥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존재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읽었지만,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더 심각한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시간을 건너는 집 / 김하연 / 특별한서재

20202 김가인

1학기에 학교에 방문해 주신 김하연 작가님의 <시간을 건너는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을 건너는 집은 김하연 작가님이 쓰신 장편소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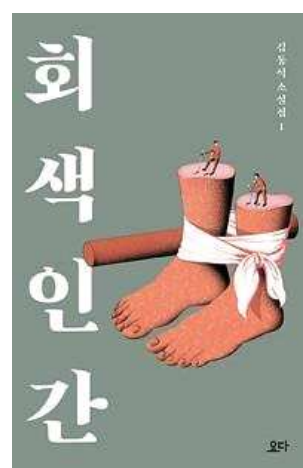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시간을 건너는 집'의 선택을 받으면 선물 받은 하얀 운동화를 신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자신의 소원과 함께 자신이 가고 싶은 과거, 현재, 미래의 문 중 한 가지 문을 선택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미와 강인, 그리고 이수과 자영이가 주인공이죠, 각기 다른 사연을 갖고 있는 넷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울기도 하며 우정을 키워가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넷은 어떤 문을 선택하게 될까요?

회색 인간 / 김동식 / 요다

10928 최수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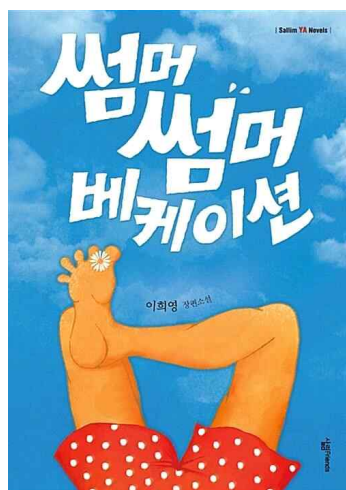
작가는 10년 동안 공장에서 노동하면서 머릿속으로 수없이 떠올렸던 이야기들을 거의 매일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갑자기 펼쳐지는 기묘한 상황, 그에 대응하는 인간들의 행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며 이야기에 빠져들게 한다.

농담처럼 가볍게 읽히지만, 한참을 생각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격리된 아이 / 김소연 윤혜숙 정명섭 / 우리학교

30425 최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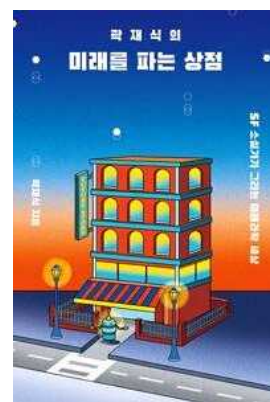


격리된 아이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우리에게 익숙한 자가 격리, 역학조사, 마스크라는 소재와 세 명의 아이 도환, 성민, 석우의 이야기로 코로나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을 보여주는 책이다. 자가 격리를 하던 중 의문의 존재에 두려움을 느끼는 도환의 이야기, 동선 조사에 거짓말을 하려는 성민의 이야기, 힘들게 마스크를 구하러 다니는 석우의 이야기. 세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젠 서서히 잊혀나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사회에서 일상이 마비된 채 두려움에 떨었다. 이 시점에서 세 아이의 이야기는 현실의 두려움 앞에 드러났던 인간의 양심과 공포를 다시금 되짚어준다.

미래를 파는 상점 / 광재식 / 다른

10928 최수빈

광재식의 미래를 파는 상점은 미래 시대의 상점에서 신기한 물건들을 살펴보고 어떤 과학기술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허황된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3년에서 30년 후 미래의 가전, 식료품, 잡화 코너에서 정말 팔법한 물건을 예측해 구체적인 상상력으로 풀어냈습니다.





같은 유치원에서 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은 중학생이 돼서 같은 반 친구로 다시 만나게 된다. 큰 유진은 작은 유진을 기억하지만 작은 유진은 큰 유진을 기억 못 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의 기억을 모두 잃었다. 큰 유진의 절친 소라는 작은 유진이 쌍둥이가 아닐까하는 이야기까지 한다. 작은 유진은 전교 1등의 성적을 내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고 어려움을 말하면 네 잘못이라고 할 것만 같아 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큰 유진은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친구 건우와 교제를 하게 됐는데 건우는 큰 유진이 전교 1등의 성적을 내는 공부 잘하는 이유진인 줄 알고 있다.

예쁜 애보다 공부 잘하는 애를 더 좋아하는 남자 건우. 둘의 연애는 건우 엄마의 반대로 끝이 난다. 티비에도 출현했던 아동 전문가인 건우 엄마는 큰 유진이 유치원에서 겪었던 성추행 사건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사건 당시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경험 있는 애는 문제가 있으니 만나지 말라고 한다. 큰 유진의 엄마는 건우 엄마의 이중성을 알리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화를 내지만 큰 유진의 만류로 그만둔다. 작은 유진도 결국 유치원 때 일어난 일을 모두 기억하게 된다. 소송을 준비하던 작은 유진의 부모님은 무슨 자량이라고 집안 망신을 시키느냐는 할아버지의 불호령에 모든 것을 지우는 쪽을 택했다.

홀릭 / 나운아 / 소원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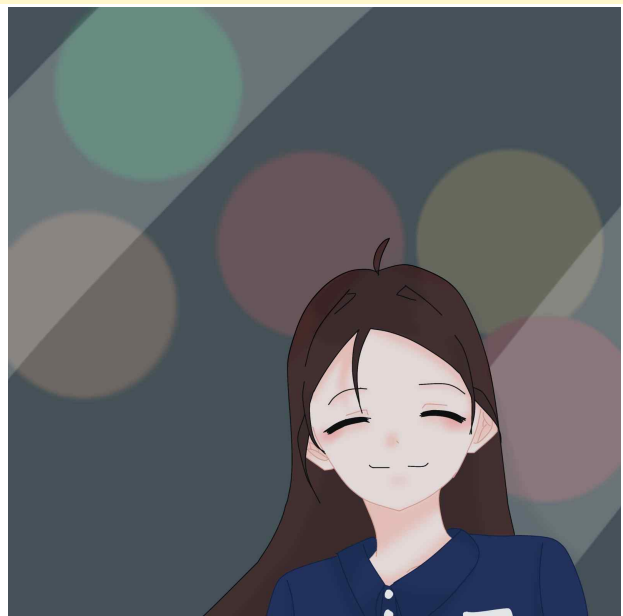
10928 최수빈

홀릭 홀릭은 자해, 스마트폰, 도박, 알코올, 게임 등 다섯 가지 중독에 빠진 다섯 청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청소년 소설집입니다.

'중독'이라는 주제 안에서 다양한 중독의 모습을 살펴보고, 사회가 정해 둔 일방적인 제약이나 금지를 따르기보다 청소년 스스로가 중독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작품입니다.



◆ 우리학교 학생그림



<고민을 들어주는 우체통>

30120 이지원

기말이 일주일 남은 지금, 더 없이 우울하고 인생에 대한 회의감에 풀 절여진 채 하교하는 길이었다. 잔뜩 울상을 지은 조연이가 투덜거렸다.

“아 공부하기 싫다.”

“나는 원래 그렇잖아.”

민이가 아무렇지 않게 맞받아치자 조연이가 버럭 소리 질렀다.

“맨날은 아니거든! 대부분은 그렇지만!”

“예, 그러시겠죠.”

“야!”

내가 영혼 없이 비아냥거리자 조연이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우는 척을 했다.

“흑흑, 나는 지금 인생이 캄캄한데. 이대로 가다간 기말에서 평균 50도 못 넘을 거야. 고등학교를 가고 나서는 성적이 더 떨어지겠지? 그럼 대학 가기도 힘들어질 거고, 취업도 어려울 거고. 결국 굶어 죽을 때 나는 지금의 나를 하염없이 원망할거야……. 왜 그 기말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냐고.”

“너무 갔어.”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지금 한강으로 뛰어내릴까? 그게 나을지도 몰라. 애들아, 나 말리지마!”

“응, 안말려.”

“너무해! 지금 나에겐 인생이 달려있는데!”

기말 하나에 인생까지야. 나는 조연이의 머리통을 가볍게 쥐어박고는 발걸음을 옮겼다.

“어? 저게 뭐지?”

“뭐가?”

“저거 봐봐.”

민이가 가리킨 쪽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공터에 웬 우체통이 세워져 있었다. 흔한 우체통의 색깔인 빨강이 아닌 파랑의 빛깔을 띄는 그것은 곧 기말고사를 앞둔 우리의 눈길을 잡아 끌었다.

“뭐냐, 이걸.”

조연이가 우체통을 앞뒤로 흔들어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할 거 없어서 심심한 사람이 장난쳤나보지.”

그렇게 말하며 어깨를 으쓱한 민이가 그만 가자고 말렸으나 조연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떤 고민이든 해결해 준다잖아. 시험 삼아 해보자. 나 이번 기말 이대로라면 망해. 고등학교 못 가.”

활기차던 평소와 달리 조금 우울한 표정을 짓던 조연이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다 썼다, 라며 당장 우체통에 집어넣으려는 조연이를 내가 붙잡고 종이를 뺐었다.

“기말고사 올백맞게 해주세요? 이걸 소원이 아니라 고민을 들어주는 우체통인데.”

“몰라, 그것도 내 고민이야!”

뻥 소리를 지른 조연이가 종이를 가로채 우체통에 넣었다.

“이제 이 우체통이 내 기말고사 걱정을 해결해줄까?”

잔뜩 설레는 표정을 짓는 조연이의 표정을 보자니 조금 숙연해졌다. 얼마나 학업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떡볶이라도 사줘야지 다짐하며 나와 민이는 각각 조연이의 팔 한 쪽씩을 붙잡고 우체통에서 끌어내려고 했다.

“소원이 아니라 고민이라니까. 그나저나 넌 그런 걸 믿냐? 빨зит 말고 가서 공부나 해!”

“아, 싫어! 공부하기 싫다고!”

야단치는 민이의 말에 조연이가 뻔 소리를 질렀다. 나와 민이는 조연이가 난리 부르스를 치든 똥을 싸든 끌고 가자고 눈짓으로 합의를 본 후, 발버둥치는 조연이를 질질 끌고 갔다.

“야, 이놈들아! 잠깐 이것 좀 봐 봐!”

“하여간 말은 많아요. 가만히 있어 봐!”

“아니, 진짜 저거 보라고!”

갑자기 어이없어진 조연이의 말투에 나는 의아해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조연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우체통은…….

“뭐야 저게?”

민을 수 없게도 무지개빛으로 찬란했다. 마법소녀가 변신할 때 나오는 배경처럼, 우체통은 내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색을 바꾸었다. 형용할 수 없는 빛의 향연에 우리 셋은 넋 놓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한참동안 변쩍이던 우체통은 SNS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내가 핸드폰을 들 때 원래대로 돌아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범한 파란색의 우체통은 아무 위화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체통의 입구에서 어떤 종이가 쑥 나왔다. 조연이는 자신을 붙잡은 나와 민이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우리를 뿌리치고 우체통 쪽으로 달려갔다.

“와, 이거 뭐야?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조연이는 한껏 호들갑떨면서 방금 우체통에서 나온 종이를 주웠다.

“봐봐, 이 편지에 내가 물어본 고민의 답변이 있을거야! 어쩌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신 이 우체통님이 정말 올백을 맞게 해주신다는 거 아닐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럴 틈도 없이 조연이는 빠르게 편지를 열었다. 편지 봉투를 열 때만 해도 한껏 상기되어 있던 조연이의 표정이 빠르게 굳어갔다. 입을 멍청하게 벌리고 있는 조연이의 등을 치며 나는 들고 있는 편지를 뺐었다. 조연이는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이게 뭐지?”

“야, 바닥 더러워. 일어나.”

내가 조연이에게 편잔을 주는 사이 내 곁 가까스로 온 민이가 별안간 웃음을 터뜨렸다. 잘 웃는 애가 아닌데, 의아한 나에게 민이가 웃음을 꼭 참는 채 부들부들 대면서 편지를 가리켰다.

“읽어 봐.”

편지에게로 눈길을 돌린 나는 순간 편지를 떨어트릴 뻔했다.

[공부나 해]

편지는 우리에게 간절하고도 부정할 수 없는 답을 주셨다.

그 후로도 조연이는 포기할 수 없다며 별의 별 고민이 써진 종이를 우체통에 넣었다. 부자 되고 싶어요, 명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세계를 뒤흔들 세기의 천재가 되고 싶어

요, 미래가 캄캄해요……. 우체통은 몇 번이나 휘황찬란하게 빛난 후 아까와 비슷한 맥락의 답변을 내놓았다. 돈을 많이 벌려 노력해,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조연이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우체통을 발로 툭 찼다. 그러나 우체통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한 번 번쩍 빛난 우체통은 조연이의 마지막 고민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네 미래는 네가 바꿀 수 있어]

“우체통님이 맞는 말 하셨다. 조연아, 기말을 잘 보고 싶으면 일단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자.”

아까 미친 듯이 웃었던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듯 빠르게 평정심을 되찾은 민이가 무덤덤하게 조연이의 등을 쳤다. 조연이는 우체통이 내뱉은 편지를 한아름 안은 채로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역시 현실에 기적은 없구나.”

“기적은 있어, 네가 그걸 만든다면. 우체통은 이렇게 답했으려나?”

“오~ 민이~ 명언인데~”

“조용히 해라.”

우리 셋은 조금 힘없는 발걸음으로 공터를 벗어났다. 투덜거리는 조연이의 목소리를 흘려들으며 뒤를 돌아봤으나, 우체통이 있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너희의 칭얼거림을 들어줬으니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듯이.

“우리 엄마가 할 법한 말이었어.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나한테 저랬을 거라니까?”

조연이의 중얼거림을 들은 그때, 문득 생각했다. 저 우체통이 꼭 조연이의 엄마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게 해줬다는 걸.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걸. 그건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다. 적어도…잔뜩 울상을 지은 채 땡깡 부리는 조연이는 집에 가서 곧바로 공부를 할 것 같았으니까.

다음 소식지도 기대해주세요~!